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不老草)

부천시 상정 꽃은 복숭아꽃이며 그 상징 목은 은행나무이다. 예로부터 복숭아는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상징했으며 은행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으뜸이 되는 나무로 가장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과 생명의 무한함을 나타내는 장수를 그 상징으로 삼은 부천시는 그만큼 예사롭지 않은 깊은 뜻이 있는 땅이기도 하다. 부천 땅은 옛날 고구려 시대에는 주부토군에 속해 있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제군이라 불리웠고 고려시대에는 수주라 칭했다. 이조시대에는 부평군에 속한 계남면이 1931년에 부평군 소사면으로 개칭되면서 오랫동안 소사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옛날의 소사 땅은 지금의 부천시 소사와 역곡의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설의 무릉도원, 부천의 소사(素砂)로 밝혀져 격암유록과 성경은, 소사(素砂)에 정도령(이긴자)이 계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부천은 복숭아가 유명하여 '복사골'로도 불린다. 복숭아는 무릉도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천생태공원 안에 이를 상징하는 무릉도원 조형물이 있다.〉

궁궁지 성산성지길설지 - 『은비가』

吉地吉地何吉地 三神山下山鳴地 桂樹
範林是吉地. 길지길지하길지 삼신산하
우명지 계수범박사길지-『초장』

‘소사동’과 ‘범박동’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곳이며 소래산과 계수동은 인근의 시흥시에 있는 곳으로 모두 이긴자 조희성님이 거주하거나 도를 닦은 장소이다.

현재 승리제단 본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75-2(부천시 안곡로 205번길 37)이다. 이 곳은 율곡 선생의 비기(秘記)에 “人衆之地 驛谷勝地(인중지지역역곡승지)”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곡은 이긴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衆(무리 중)자는 원본에는 사람 인(人)자 세 개가 모여 있는 글자(叢)로 표기되어 있다.

역곡은 경인 전철역으로 생긴 지명이지 예전부터 내려온 지명이 아니다. 역곡(驛谷)이란 지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율곡 선생이 이렇게 ‘역곡이 이긴자가 계시는 곳’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선조들의 혜안에 놀라울 따름이다.

경인지방이 길지(吉地)

도(道)를 닦는 사람들이거나 진인(眞人)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지(吉地)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어느 곳에서 유명한 도인(道人)들이 많이 나왔거나 진인(眞人)이 있다면 그들은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격암유록은 길지(吉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平沙三里十勝吉地(평사삼리십승지) 즉 부평과 소사가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길지(吉地)라고 예언하고 있다. “非山非野 仁富之間(비산비야인부지간) 弓弓吉地傳(궁궁길지전)했지만 - 『未中運(말운론)』”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가 이긴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길지라고 전해 내려왔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을 살펴보면 부천과 부평, 인천이 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인지방에서도 소사(素砂)가 길지 중의 길지이다. 격암유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부분에 “始終良也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 즉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소사에서 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도부신인 편에는 “天崩地拆素砂立(천붕지파소사립)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사에서 하늘나라를 세운다고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하늘나라는 지상천국과 무릉도원을 의미하므로 경인지방에서도 소사가 최고의 길지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전설의 무릉도원이 바로 부천의 소사(素砂)이며, 격암유록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소사에 정도령(正道令) 이긴자가 계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긴자가 받은 ‘흰 돌’이란 바로 소사(素砂)라는 지명을 뜻한다. 소(素)는 흰 소자이며 사(砂)는 모래 사자이다. 따라서 소사란 흰 모래를 뜻하며 모래는 돌이 부서져서 된 작은 돌이므로 소사(素砂)란 ‘흰 돌’이 된다. 또한 이긴자이신 조희성 선생께서 일곱 살에 하나님으로부터 ‘흰 돌’

을 받았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素砂(소사)라는 글자였다는 것이다.

삼신산의 불로초·불사약은 조상 대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구할 수 있어

조희성 정도령께서는 성경과 격암유록에 예언된 대로 하늘의 역사를 소사에서 마무리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이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망 30리에 이제 궁전을 크게 다이나므로 짓는데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당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2003. 11. 말씀).”

소사를 중심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살게 될 궁전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무릉도원은 한국 땅 부천 소사(素砂)에 있다. 삼대(三代)의 덕(德)을 쌓은 후손을 통해 정도령을 만나게 되어 있다. 또한 무릉도원과 불로초에 대해 격암유록은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동쪽 바다 삼신산의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 즉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무도대병(無道大病)이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지만 삼대(三代)의 덕(德)을 쌓은 후손(後孫) 즉, 조상 대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구(求)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人力)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예언이다.

이긴자 조희성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승리제단에 나오는 성도들이 감로이슬성신 곧 은혜의 빛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마귀의 빛,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구세주 얼굴에서 영원한 빛이 온 세상 만민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만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마귀가 전부 전멸되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데, 그 기간이 6000년에서 7000년의 기간입니다(2002.01.23. 말씀).”

온 인류가 갈망하는 도(道)의 뜻이 바로 감로이며, 이슬이며, 생명수이다. 그 뜻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영생체의 몸(신인神人)으로 화하여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무릉도원이자 낙원이다. 부천 소사가 무릉도원궁궁지(武陵桃源弓弓地)이다.* 출처: 유튜브 ‘진자아롱TV.’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6>

“체내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높아야”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좋은 곳에서 심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배가 सू 나오도록 들어 마시고 배가 सू 들어가도록 내쉬세요. 그렇게 배 안에 있는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면 배 안에서 기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체내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피로하지 않으려면 체내의 기압이 외부에서 받는 기압보다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삶

억울하고 원통할 때 참아라

옛날 어떤 마을에 사는 처녀가 아기를 배고 말했다. 부모는 놀라 딸을 다그쳤다.

“어느 놈의 자식이나?” 딸은 궁지에 몰려 대답이 궁색한 나머지 그만 엉뚱한 이름을 대고 말했다. “동네 위에 절의 백은 스님이예요.” 놀랍기 이를 데 없는 소리였다. 덕이

필요가 없다. 백은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면 결국 그 오해가 풀릴 것이므로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내가 한 일이면 그 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 오해를 풀면 되고, 만약 나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므로 역시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

높은 스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화가 나서 당장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었는지라 부모는 잠잠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리리 의연한 모습이 나의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미끼한 딸을 돌보아 주시어 스님의 혈육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 그래요?” 할 뿐이었다. 마침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부모는 울화가 치밀어 당장 찾아와서 스님의 목살을 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리리 의연한 모습이 나의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자 스님은 “아, 그래요?” 할 뿐 그 딸의 입장을 생각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괴로워진 딸이 진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부모님께 고하였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리리 의연한 모습이 나의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부모님은 백은 스님에게 한 일이 너무나 미안하여 스님을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백은 스님은 “아 그래요?” 하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리리 의연한 모습이 나의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도심이 깊은 어느 스님의 이야기 같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내용은 크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나에게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결심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심지어 너무 억울하여 영영 울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을 앞에 차리리 의연한 모습이 나의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뭄이나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을의 쌀 풍년 농사가 잘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우리나라 벼농사 평균 통계는 해마다 풍년작으로 쌀 수확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고, 태풍을 내륙으로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풍년 농사로 이어져 쌀 걱정을 면하게 되고, 쌀이 남아돌자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도령님의 풍운조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덕분이다.



▲ 1981년 이후 계속되는 가을 풍년 쌀농사

자연을 상대로 1차 산업을 하는 모든 농업과 수산업, 임업 등은 적당한 물과 바람, 온도, 일조량 등 기후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장마나 태풍, 그리고 가뭄이나 냉해 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과거에는 하늘 탓으로 돌리고 인간으로서의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말씀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여 다섯 가지 공약의 축복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4개월 큰 피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정도령님의 5대 공약 실행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정도령이며, 그 증표로 ‘화우로 삼풍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와 장수 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에게 오사(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를 주관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것처럼, 장수 풍백, 운사, 우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구세진인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은 바로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승되어 왔다는 증거다.

一行徐輔睦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 나라 태풍이 온 세계로 퍼지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된 6·25전쟁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 손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

을 하게 되어 있는 일이다. 이긴자 정도령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므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